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10월 고용 16만 5천명 증가… 시장 전망치 크게 상회
- Bloomberg: 오늘 발표된 고용 수치 핵심 내용은?

[금융]
- TheEconomist: 미 중간선거 '블루웨이브'에 어제 증시 폭락… AI 열풍 차질 우려
- Bloomberg: 미 고용 호조에 금리 인상 가능성… 국채 가격 하락
- Bloomberg: 앤트로픽 IPO 투자자들, 기업가치 1조 2천억불로 하향 조율
- Bloomberg: 한국 증시 1.7조 달러 증발… 투자 독려한 정부에 시험대

[미 중간 선거]
- NYT: 기존 정치 거부한 미 청년층, 민주당 대승 이끌어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미·이란 핵 협상 재개 타진… 전쟁 종료 타결 가능성

[오일]
- Bloomberg: 사우디 공급 회복에 OPEC 원유 생산량 전쟁 전 수준 회복세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- CNBC: 미 중소 유통업체 연말 큰 타격 예상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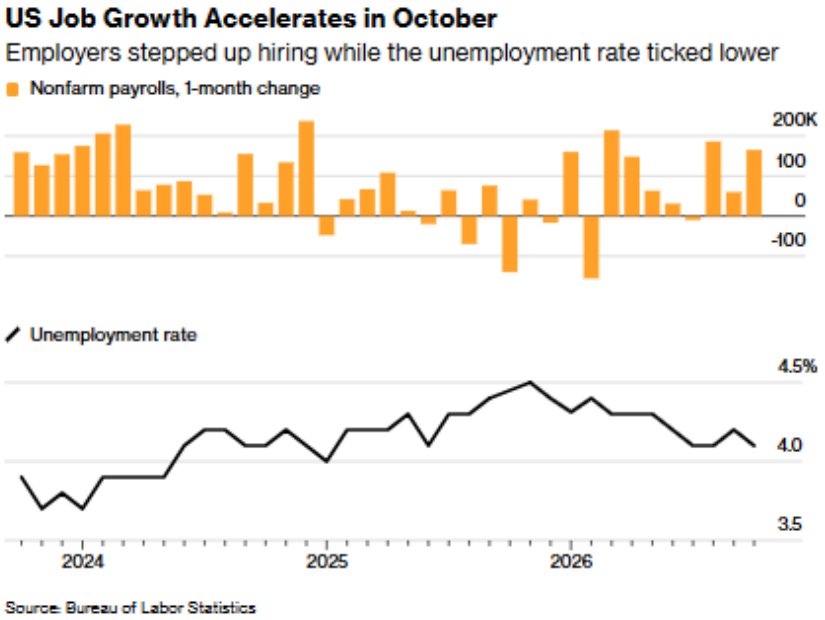
[KMI 공급망 브리핑]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Adds 165,000 Jobs, Topping All Forecasts in Broad Advance
미 10월 고용 16만 5천명 증가… 시장 전망치 크게 상회

- 미국의 10월 고용 증가 폭이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고 실업률도 하락하며 견조한 노동시장을 입증했다.
- 오늘 금요일 연방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은 16만 5천명 늘어났다. 이는 직전 2개월 수치가 상향 조정된 데 이어 나온 수치로, 전문가 예상치를 일제히 웃돌았다.
- 이번 고용 증가는 전문·비즈니스 서비스, 의료, 제조업 등 여러 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. 특히 민간 부문 고용 증가세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강력한 흐름을 나타냈다.



기사

Bloomberg: US Jobs Gains Trounce Forecasts as Unemployment Rate Falls

오늘 발표된 고용 수치 핵심 내용은?

- 10월 미국 고용 성장이 가파르게 반등하고 실업률은 4.1%로 낮아졌다. 비농업 일자리는 165,000개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를 일제히 넘어섰다.
- 8월과 9월 고용 수치도 상향 조정되며 기존 발표보다 84,000개가 추가되었다.
- 의료 및 사회복지 부문이 6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5만5천명을 늘렸다. 제조업 일자리는 1만9천명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건설업은 감소했다.
- 경제활동참가율은 3월 이후 최고치인 61.9%로 올랐다.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.4%, 전년 대비 3.1% 상승했다. 이번 발표 후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78%로 올랐다.

기사

[금융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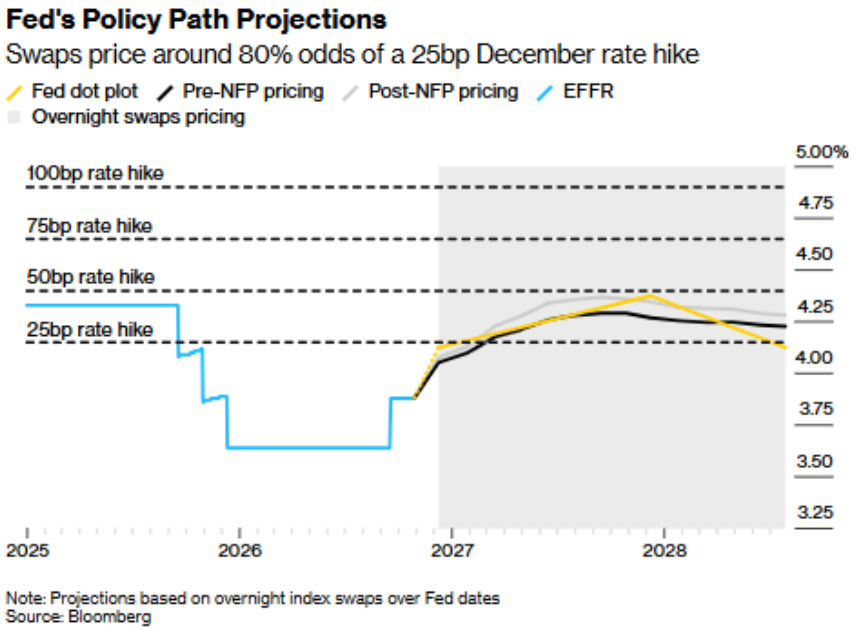
TheEconomist: Markets realise they hate America's blue wave
미 중간선거 '블루웨이브'에 어제 증시 폭락… AI 열풍 차질 우려

- 미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로 AI 확산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며 S&P 500은 4%, 나스닥은 5% 이상 어제 목요일 급락했다.
- 데이터센터 추진이 집중된 텍사스의 민주당 주지사 당선인이 건설 유예를 지지하는 등 인프라 확충 차질 우려가 커진 탓이다.
- 반도체·전력 등 인프라주와 모건스탠리 등 금융주가 직격탄을 맞은 반면, 이미 인프라를 갖춘 빅테크 4사는 수익성 방어 기대에 보합세를 유지했다.
-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인 국채와 방어주로 이동했으며, 시장은 이를 AI 중단이 아닌 정책 변화에 따른 조정으로 평가했다.

기사

Bloomberg: Treasuries Stumble as Strong Jobs Data Backs Fed-Hike Bets
미 고용 호조에 금리 인상 가능성… 국채 가격 하락

-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 전망에 힘이 실렸다. 이에 따라 미 국채 가격은 하락(금리 상승)했다.
- 고용 데이터 발표 직후 2년물 국채 금리는 4.54%까지 최대 7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했다.
-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0.25%p 인상할 확률을 약 80%로 반영하고 있으며, 2027년 9월까지 최소 40베이시스 포인트의 추가 긴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


기사

Bloomberg: Anthropic IPO Buyers See Valuation Down as Low as $1.2 Trillion
앤트로픽 IPO 투자자들, 기업가치 1조 2천억불로 하향 조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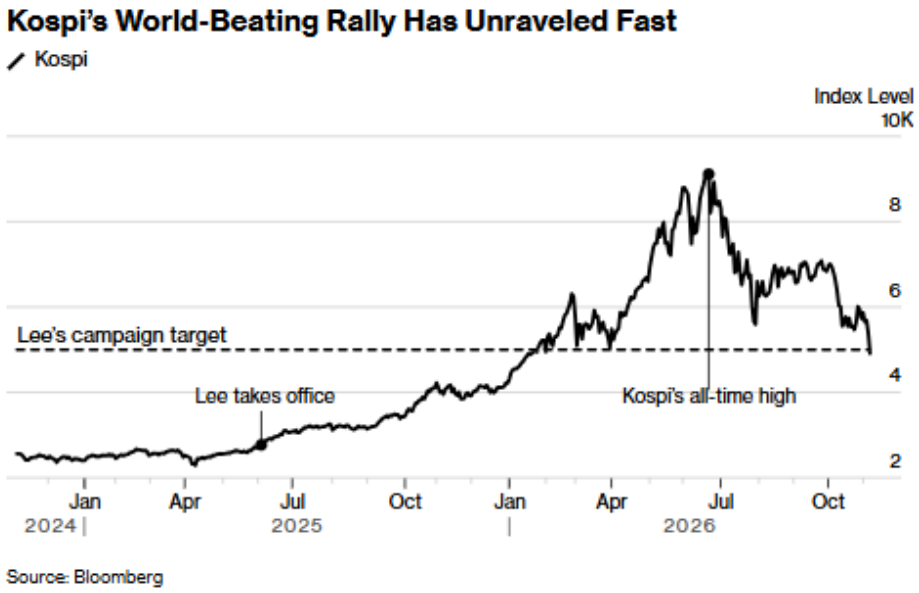
- 선거 이후 기술주 매도세 영향으로 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IPO 추진에 차질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이 예상 기업가치를 재조정하고 있다.
-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모 참여를 검토 중인 대형 투자자들은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를 1조 2천억~1조 3천억 달러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.

- 최종 결정은 나오지 않았으나, 기술주 변동성이 커진 만큼 기업가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.

기사

Bloomberg: Korea's $1.7 Trillion Rout Burns Day Traders, Challenges Lee
한국 증시 1.7조 달러 증발… 투자 독려한 정부에 시험대

- 한국 정부가 한때 치적으로 내세웠던 국내 증시가 폭락세로 돌아서며 1조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다.
- 이에 따라 부동산 대신 주식 투자를 독려했던 정부 조치를 믿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.
- 코스피 지수는 지난 6월 AI 열풍에 힘입어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44% 이상 급락했다. 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9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, 부동산 대신 증시에 자금을 넣은 개인 투자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크게 쌓이고 있다.



기사

[미 중간 선거]

NYT: Fed Up With Politics and Struggle, Young Voters Rose Up
기존 정치 거부한 미 청년층, 민주당 대승 이끌어

- 기성 세대 정치권에 거부감을 느낀 청년층 표심이 폭발하며 민주당의 중간선거 대승을 이끌었다.
- 18~29세 표심은 2024년 대비 남성이 40%p, 여성이 27%p 민주당으로 이동했다.
- 특히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18~44세 남성 표심이 민주당 James Talarico 후보 쪽으로 50%p 가까이 쏠렸다. 이러한 세대교체 열풍에 힘입어 미시간주의 민주당 Abdul El-Sayed상원의원, 아이오와주 민주당의 Rob Sand 주지사 등 젊은 정치인들이 대거 정계에 진출했으며, 애리조나주 Maricopa에서는 19세 대학생이 행정처장으로 당선됐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US and Iran Edge Closer to Deal With Nuclear Issue Back in Play
미·이란 핵 협상 재개 타진… 전쟁 종료 타결 가능성

-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진전을 보이며 타결에 가까워지고 있다. 이란 측이 그간 난항을 겪던 핵 프로그램 관련 의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함에 따라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모습이다.
- 중재국인 카타르가 제시한 원자력 활동 관련 제안서를 이란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가운데, 트럼프는 최근 카타르 군주와 전화 통화를 갖고 긴장 완화방안을 논의했다.
- 이에 따라 중동 내 군사적 충돌을 마무리 짓기 위한 양국 간 외교적 모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.

기사

[오일]

Bloomberg: OPEC Output Neared Pre-War Levels on Saudi Rebound, Survey Shows
사우디 공급 회복에 OPEC 원유 생산량 전쟁 전 수준 회복세

- 블룸버그에 따르면, 사우디가 이끄는 페르시아만 국가들의 공급 회복으로 지난 달 OPEC의 원유 생산량이 전쟁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.
- 10월 OPEC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전월 대비 93만 배럴 증가한 2천2백80만 배럴을 기록했다. 이는 기존 회원국들이 지난 2월에 생산했던 물량의 약 88% 수준이다.
- 이러한 OPEC의 공급 회복세는 지난달 고점을 찍었던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이바지하며, 고유가 부담에 시달리던 세계 경제에 완화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CNBC: Small retailers brace for ‘huge hit’ this holiday season as shipping costs spike
미 중소 유통업체 연말 큰 타격 예상돼

- 유가 등의 상승에 따른 배송비 급등으로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이번 연말 쇼핑 시즌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.
-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배송비는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.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타격을 면할 수 있지만, 중소기업들은 늘어난 물류 비용 부담을 그대로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다.
- 이에 따라 일부 소기업들은 수익성을 위해 무료 배송 혜택을 폐지하거나 고객 대상 배송 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[KMI 공급망 브리핑]

-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이 호르무즈 해협 650km 앞까지 확대되고 P-8 해상초계기와 EOD 부대가 추가 투입되는 등 한국군의 지역 관여가 대폭 강화됐다.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(IRGC)는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려던 선박 3척에 발포했다고 밝혔으며, 카타르 북부 해상에서는 유조선이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. 후티 세력 또한 사우디 메디나 인근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.
- 유조선 피격 직후 브렌트유가 3달러 이상 급등했으나, 미국 중간선거 결과로 인한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감에 WTI와 브렌트유가 9% 급락하는 등 국제 유가는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. 물류 시장에서는 머스크(Maersk)가 3분기 EBIT 155% 급등에 힘입어 2026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한 가운데, 발틱운임지수(BDI) 상승과 수에즈 운하 통과 건수 및 수익 증가세가 함께 관측됐다.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1,550.00	+28.7	+0.06%
US 500	7,419.90	+66.1	+0.90%
US Tech 100	27,128.10	+498.3	+1.87%
Dow Jones	51,501.85	-21.21	-0.04%
S&P 500	7,419.93	+66.14	+0.90%
S&P 500 VIX	24.68	-3.47	-12.33%
Dollar Index	102.063	+0.637	+0.63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1/32	5.251	-0.007
10-Year Note	4.625	-1/32	4.858	0.019
7-Year Note	4.875	-2/32	4.741	0.030
5-Year Note	4.75	-2/32	4.648	0.042
3-Year Note	4.875	-1/32	4.589	0.049
2-Year Note	4.625	-1/32	4.524	0.055
1-Year Bill	0	1/32	4.323	0.042
6-Month Bill	0	1/32	4.264	0.041
3-Month Bill	0	0/32	4.105	0.014
1-Month Bill	0	1/32	3.946	0.037

미국 USD	유럽 EUR	일본 JPY	중국 CNY	유로/달러	달러인덱스
1,362.20	1,518.65	860.25	204.18	1.1219	102.17
+5.20 (0.38%)	-3.70 (0.24%)	-0.35 (0.04%)	+0.57 (0.28%)	-0.0004 (0.04%)	+0.62 (0.61%)
11. 7. 01:25 실시간	11. 7. 01:25 실시간	11. 7. 01:25 실시간	11. 7. 01:25 실시간	11. 5.	11. 6. 11:16 10분 지연

환전고시환율 | 국제시장환율

미국 USD

1
1 달러

대한민국 KRW

1,362.20
1,362.20 원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